

1/7/18

설교 제목: 너희 하나님을 보라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이사야 40:1-11

- (사 40:1)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 (사 40:2)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당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절관주](#) 사 35:4
- (사 40:3)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 (사 40:4)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 (사 40:5)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절관주](#) 요 1:14
- (사 40:6)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랴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절관주](#) 렘 2:2, 애 2:19
- (사 40:7)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흐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절관주](#) 사 40:24
- (사 40:8)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 (사 40:9)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절관주](#) 사 25:9
- (사 40:10)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절관주](#) 계 22:12
- (사 40:11) 그는 목자 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축소해 놓은 작은 성경이라고도 불립니다.

성경이 66 권이듯이 이사야서도 66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구약 39 권과 신약 27 권으로 나뉜 것처럼 이사야서도 전반부의 39 장과 후반부의 27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말하고 신약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전반부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주위의 열방이 죄를 범하고 온 땅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후반부는 메시아로 말미암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다릅니다.

내용이나 문학적 스타일 시대적 배경 등에서도 서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의 전반부(1-39 장)와 뒷부분(40-66 장)를 하나로 연결짓는 고리가 전반부 마지막 장인 39 장입니다.

39 장은 히스기야 왕의 실수로 인해 남 유다가 멸망하리라는 예언으로 끝을 맺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강대국 앗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위기의 유다를 구해내고 예루살렘을 지켜낸 유다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승리에 도취된 히스기야 왕은 당시 신흥 국가로 한참 일어서고 있는 바벨론 나라의 왕 므로닥발라단의 방문을 받고 그에게 남 유다의 모든 문화 정치 군사적 기밀들을 다 공개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마도 그 때까지 크게 번성하지 않았던 바벨론을 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으며 그리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남 유다가 바벨론 나라에 의해 멸망할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결국 예언대로 남 유다는 그로부터 약 150 년 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언이란 꼭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들로 하여금 근신하도록 경고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 유다 백성들은 멸망을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 유다 민족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간 후에 70 년 후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얻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위해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사 40:1)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선지자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외치게 합니다.

(사 40:2 전)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당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서 황폐해진 땅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유다 민족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라고 합니다.

(사 40:2 후)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죄로 인해 받아야 했던 벌인 노역이 끝났고 그러므로 이제 죄도 다 사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은 죄 값을 두 배로 값았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놀라운 선포입니다.

선지자가 다시 광야로 보내집니다.

(사 40:3)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와 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사 40:4)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사 40:5) 여호와와 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와 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국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 길도 없고 물도 없는 험난한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길을 예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광야는 분명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길임에도 여호와께서 친히 광야 길로 유다  
백성들에게 다가오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 분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 가운데 위엄스럽게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출 19 장).

하지만 본문에서 하나님은 광야를 걸어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 나가기 전에 당신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먼저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걸어야만 하는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 인간이 스스로 광야의 길을 걸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친히 마중 나오십니다.

포로 생활에 지친 유다 민족과 함께 그 고된 광야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꿈과 환상을 유다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이 놀라운 꿈을 꾸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길을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시는 그 광야의 길을 닦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레 요한에게서 성취됩니다.

세레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며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던 불의한 길에서 돌아서도록 촉구함으로 주님 오심의 길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사 40:5)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데리고 오십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모든 육체가 함께 볼 것입니다.

그리고 부러워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갚으시고 그들을 당신의 품에 품고 친히 광야를 건너서  
당신이 예비하신 은혜의 장소,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가도록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 분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추위 속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구름 가둥으로 쉬게 하십니다.

광야는 여전히 광야이지만, 그 길을 당신의 백성과 함께 가나안까지 걸어가신 여호와께서 친히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0 장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서론입니다.

이 장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어마어마한 구원 역사의 서곡입니다.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지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할 때로서는 아직 미래의 사건이지만 그렇더라도 결국 남 유다를 포로로  
잡아갈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당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남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구출받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서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사 40:6)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랴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사 40:7)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희는 여호와와 기운이 그 위에 붉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사 40:8)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끝날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제국이라도 마치 들의 풀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만이 영원하며 성취됩니다.

결코 망할 것 같지 않던 이집트도 앗수르도 바벨론도 시간이 차매 다 멸망했습니다.

모든 세상의 힘은 결국 풀과 같이 들의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듭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비록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제국이 나를 포로로 잡고 있더라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하여서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풍파가 와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다시 선지자를 보내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 40:9)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사 40:10)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사 40:11) 그는 목자 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70 년간의 포로 생활로 인해 소망마저 잃어버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희 하나님, 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거대한 제국 바벨론도, 사라져 버린 앗수르도 쳐다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당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가 누구인가, 그런 내가 장차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이 강한 자로 오셔서 친히 다스리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분은 강한 자로 임하실 것입니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분은 상급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 분은 자기 백성들에게 큰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을 당할 백성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말씀으로 선포됩니다.

우리도 노예적 삶을 살아갑니다.

물질의 노예로, 명예의 노예로, 근심의 노예로, 장래에 대한 두려움의 노예로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양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버리는 참 목자.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친히 광야의 거친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당신을 보라”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답할 차례입니다.

(시 23: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 23: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 23: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 23: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 23: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 23: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